



2007 금융기관장 인터뷰 ④

영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안남근

農協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성장 발전해야

농촌사랑봉사대 이·미용, 목욕, 두부만들기 봉사활동



원으로 평균출자금 108만1천원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8명으로 11명이며 직원은 전무 1명, 지소장 1명, 상무 2명, 차장 1명, 과장 5명, 과장대리 13명, 계장 8명, 기능직 9명, 계약직 2명, 시간제업무보조원 2명 등 44명이며 이중 38명은 본소에서, 6명은 지소에서 근무중이다.

2006년 경영성과를 보면 자산총액은 783억2천700만원이고 퇴직급여 총당금 등의 총당금을 차감한 부채는 741억9천700만원, 자본금, 즉 출자금 및 자본적립금 등 제 적립금의 합계액이 40억3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천100만원이 증가했다.

안 조합장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연합마케팅 사업을 들었다. 조합간 계통간 역할 분담을 통해 규모화와 전문화를 이룩하여 농업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판매사업으로 고추와 토마토, 오이 등 3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100평, 농산물 집하장 100평, 선별장 100평 규모를 갖춘 영중농협 창수지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안 조합장은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생일카드를 직접 써서 보내고 있다. 그리고 모내기철과 장마철, 벼베기철에는 꼭 현장에 나가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6년도 영중농협 조합원은 36명이 신규가입하고 24명 탈퇴해 12월말 현재 1천28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은 13억9천만

원인 조합원 40명으로 구성된 농촌사랑봉사대는 이·미용 봉사, 목욕봉사, 두부만들기 봉사 등 3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용 봉사팀은 매월 2개 부락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청소를 물론 노인 위한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점심식사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다.

목욕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여명을 대상으로 1:1로 목욕을 시켜드린 후 식사를 대접하는 식으로 운영되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두부만들기 봉사팀은 1개월에 1회 공 40~80kg의 두부를 만들어서 업체와 식당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안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시중은행을 견학해서 벤치마킹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노

력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FTA협상으로 농업시장이 개방되어 여러 가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장학사업을 추진해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으로 농가 가계비 절감과 후계조합원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와 농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생은 2003년 12명 600만원, 2004년 36명 1천800만원, 2005년 34명 1천200만원, 2006년 34명 1천700만원, 2007년 33명 1천650만원 등 모두 6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 조합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영중농협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중농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다.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26

정성의 집

건강 365일로 家族의 행복을 보장



대표 김상만

달(열매)이 붉게 영글어 눈에 잘 띄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산삼특유의 약효는 가을철에 캔 산삼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심마니 생활을 하면서 겨울철에 일이 없는 김 대표는 산삼을 캐러 다니면서 효능이 좋은 약초 등을 자주 채취해 건강원에서 재료로 사용하면 고객들이 더욱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지난 10월에 건강원을 개업하게 되었다.

창남 금산이 고향인 김 대표는 조부께서 한의원을 운영했었고 사촌형이 약초 가게를, 외 사촌형이 23년 동안 건강원을 운영해 온 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성장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김 대표가 운영하는 정성의 집은 김 대표와 인맥을 깊이한 주위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고 귀뜸하고 있다. 평소 산행을 하면서 우의를 다져온 분들이나 서울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한 이유는 김 대표가 제조하는 건강식품은 믿을 수 있는 식품으로 고객이 먼저 알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 소문을 통한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객 층과의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평소 김 대표가 고객들에게 보여준 성실함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성의 집은 산삼, 홍삼 엑기스, 개소주, 흑염소, 미꾸라지, 가물치, 잉어, 붕어, 호박, 포도, 배, 양파, 매실 등 다양한 제품을 정성과 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건강처럼 중요한 노후대책이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며 자기 취향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건강식품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양질의 재료사용으로 두터운 고객 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성의 집(포천시 선단동 760-3, 대표: 김상만).

김 대표는 평소 산을 갈기 했다고 한다. 8년 전 참마지 공장을 운영하던 김 대표는 산행하던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 제조로

고객의 365일 행복·건강·삶을 보장

도중 우연하게 10뿌리의 산삼을 발견하는 행운을 잡았다. 그 후에도 가족들과의 동반 산행도중에도 산삼을 발견 그 해 3번째로 산삼을 보게된 행운의 주인공이다.

그러한 인연으로 김 대표는 운영하던 참마지 공장을 접고 본격적으로 심마니로 직업을 전환했다. 전국에 약 480여 명의 회원들 두고 있는 한국심마니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포천시지부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다. 산이 좋아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던 김 대표가 유명세 있는 심마니로 변신한 것이다.

국내산삼은 주로 4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채수 가능한 시기라고 한다. 겨울철에는 줄기가 울라오지 않아 산삼을 캔 방법이 없고 보통 7~8월에 가장 쉽게 산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제조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심마니협회 회원들이 채취한 산삼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산삼을 보관, 관리하며 고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산삼은 원기회복, 암 예방, 고혈압 예방, 면역력 증진, 체질개선,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삼 성분의 60%는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 식품에서는 볼 수 없는 산성펩티드, 고미신, 폴리사세틸, 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약효를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

문의 031)543-2925 Hp 010)7332-431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양질의 재료사용으로 두터운 고객 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성의 집.

자영업자들의 노후설계 : 빨리 계획하고 꾸준히 준비해야

포천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인 보다 학원이나 식당 또는 조그마한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다.

최근 만난 학원 원장님은 이번 신학기에 생각만큼 원생이 늘지 않았다며 근심스런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 원장님의 소득을 따져 보니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다만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늘 소득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고 노후대책은 염두도 내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항상 손에 있다 보니 씁쓸하는 해프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직장인 보다 더 꼼꼼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자칫 방만하게 살림을 하다 보면 번는 돈은 많은데 남은 것은 없는 부실 인생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은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일정부분 노후

보장이 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본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이외에는 노후 보장 수단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아 밀지 않은 미래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재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재무관리를 해야 긴 인생을 제대로 대비 할 수 있을까?

우선 특정한 날을 정해 본인에게 월급을 주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사업체의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가정 살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사업장과 가계의 계좌분리이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의 돈을 월급으로 떼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살림살이가 되도록 해야 가정경제도 규모 있게

이루어지고 사업소득도 쌓이게 된다.

둘째, 스스로 퇴직금을 조성하자.

어떤 사업이든 꾸준히 좋을 수는 없다. 좋을 때는 계속 사업이 잘될 것 같아서 해프게 돈을 쓰고 어려울 때는 돈이 없어 자축을 못하다 보면 노후준비는 영원히 할 수 없다. 경기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은퇴자금 만큼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에게 적합한 노후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쉽게 깨기 어려운 연금보험이나 장기펀드를 꼽을 수 있다.

꾸준한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유니버설상품(또는 변액 유니버설상품)도 유용하다. 의무납입기간 이후의 납입 여부가 자유롭게 향후 목돈발생시 일시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추가납입기능이 있을뿐더러 중도인출가능으로 목적에 따른 자금인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더

불어 적격연금을 병행해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다 더 체계적인 노후대비를 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은퇴 견적을 낸 뒤 ▶평균 수명이 긴 아내를 중심으로 은퇴 설계를 하고 ▶은퇴 시점에 기본생활비의 80% 이상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구성하며 ▶은퇴 후 생활비의 50%를 차지하는 의료비는 따로 준비하고 ▶65세 이후에도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경기에 한숨만 쉴 수가 없다. 그러나 북풍한설이 지나면 꽃피는 봄날은 반드시 온다. 주위를 돌아보라. 진달래, 개나리, 목련이 한창이지 않은가.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한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 사이트 내의「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흙막이지보공 붕괴 매몰사망

▶재해발생개요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응해 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하여 피재가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응해 시 토압 증가

가.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응해 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한 점진적 및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해빙기 작업재개 전 주의 사항

* 점진적으로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유무를 확인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응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
•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점검
•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지금지
•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직장생활하다 쉬던 주부, 미납액 한꺼번에 낼 수 있나?

납부예외신청 안했다면 불가능

주부는 임의가입자로 전환해 계속 납부하는 게 유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로 구분된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그 외의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 의무 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은 임의 가입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변경해야 한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높은 안정성과 수익

대상이라면 유예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돈을 추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납제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제도는 가입대상이나 별도의 소득이 없어 본인 청구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가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가입 기간이 1년 일 경우 6년간 가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간 가입으로만 인정받게 된다. 결국,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임의 가입자 전환을 서둘러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소 031-544-8700